

+ 함께 볼 말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로마서 12:15-18, 새번역)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Do not be proud, but be willing to associate with people of low position. Do not be conceited. Do not repay anyone evil for evil. Be careful to do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everybody. If it is possible, as far as it depends on you, live at peace with everyone. Amen.(Romans 12:15-18, NIV)

+ '복음'과 '삶'이 만날 때.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

영화 속에서 프레드 로저스는 로이드에게 “고통 없는 평범한 삶은 없다”고 말한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처를 받거나 비극을 경험하기도 한다. 로저스는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마주할 때 그것을 참고, 숨기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다만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감정을 다스리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고, 언제든지 멈출 줄 알아요. 이런 기분 정말 좋아요. 내가 느끼는 기분이 중요하니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기분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요. 소녀들은 언젠간 어른이 되고, 소년들은 언젠간 어른이 되죠.”

겉모습만 성숙한 어른이 아닌,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삶의 습관으로 다룰 수 있는 “더 나은 사람”으로 살기를 로저스는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바란 것이다.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는 사건이나 감정 앞에서, 슬픔과 분노를 잠시 멈추고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올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만이 아닌,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형성하고 변형시키는 영성이 되고 사랑과 긍휼의 실천을 만들어낸다면,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발행 문화선교연구원

집필 및 디자인 문화선교연구원 다운로드 www.cricum.org/1646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27(대신동, 하늬솔빌딩A) B1 필름포럼

문의 02-743-2535, www.cricum.org



영화 <뷰티풀 데이 인 더 네이버 후드> 무비특가이드 vol.41

“내 이웃이 되어줄래요?”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돌아본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문화선교연구원+필름포럼+서울국제사랑영화제

+ 어떤 영화예요?

영화 <뷰티풀데이 인 더 네이버 후드>(A Beautiful Day in the Neighborhood)는 미국의 어린이 프로그램 <Mister Rogers' Neighborhood>의 제작자 겸 진행자였던 프레드 로저스 목사의 삶을 다루는 내용으로, 미국의 에스콰이어지 기자와의 인터뷰에 얽힌 일화를 바탕으로 전개된다. 평소에 인터뷰 대상을 비판적으로 기사화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기자 로이드는 프레드 로저스를 인터뷰하게 된다. 그는 국민적 영웅이자 친절한 신사인 로저스의 삶에도 이중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접근하지만, 프레드 로저스는 오히려 로이드와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늘 타인의 그늘을 찾아내느라 외면해왔던 로이드는 프레드 로저스와의 만남을 통해 서서히 자신의 그늘과 마주하고, 깊숙이 숨겨왔던 분노와 상처를 꺼내어 보고 위로와 용서를 주고받게 된다.

+ 영화 이해를 위한 TIP!

프레드 로저스는 처음부터 방송인이거나 목사는 아니었다. 콜린스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던 학생이었다. 대학 4학년 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TV라는 매체 속 한 장면에 충격을 받았다. 한 프로그램에서 상대방의 얼굴에 파이를 집어 던지는 광경을 목격했던 것이다. 그는 그때의 경험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며 동시에 그런 행동이 사람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그런 매체의 **선한 영향력의 필요성**을 느껴 방송국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이후 신학과 상담, 아동발달에 관한 공부를 공부했다. 1968년부터 2001년까지 공영방송에서 그만의 독특한 신념으로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했다. 아이는 아이의 삶이 있고, 어른은 어른의 삶이 있다고 그는 믿었다. 그래서 다른 어린이 프로그램처럼 세상의 밝은 면만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4개월 뒤에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인형 캐릭터 대니얼의 대사를 통해 “암살이 뭐니?”라는 질문을 하게 했다. 이혼, 전쟁, 인종차별, 죽음, 9.11 테러 등 다른 어린이 프로그램이 다루지 않는 주제도 다루며 어린이에게도 세상의 일원으로서 그들 눈높이에 맞는 진실을 알려주려 애썼다. 그에게 있어 방송은 단순히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유희적 차원이 아닌, 혼탁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수원지였다.

+ 영화 보고 나누기

1.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이나 인상 깊은 장면, 인물, 대사를 골라 A4 용지에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쓴 이유에 대해 함께 나눠주세요.
2. 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린이 프로그램을 맡은 진행자라고 가정해봅시다.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껏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지지 않는 주제(예를 들어, '죽음', '전쟁', '난민' 등)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를 골라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주고 싶은지 적어보세요.
3. 프레드 로저스처럼, 용서할 수 없는 분노의 감정 앞에서 “자신이나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감정을 다스리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혹은 없다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감정을 해결해나가고 싶은지 그 ‘다짐’을 함께 나눠주세요.
4. 프레드 로저스는 깊은 영성과 윤리적 책임을 다하여,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한 인물입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며, 또 어떤 이웃이 되어주길 원하나요?